

2002년 12월 6일

경남 양산 효암고 방문 연설

반갑습니다. (「네」 하는 학생들) 제가 한마디를 해야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미리 준비를 다 해오는데 오늘은 준비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잘 이해하십시오. (「네」 하는 학생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얼른 생각난 것이 '관심'. 제가 학교에 들어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보이던 것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르더라' 이것을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서산대사님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유흥준 선생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앞쪽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옛날에 보던 것과 다르더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이라는 것은 대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인데 모아서 보면 관심, 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부드러

워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관심을 통해서 극복되거든요. 그래서 시큰둥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사람한테 적용하면 사랑이 되지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꼭 학교 공부나 학교 성적 아닌 다른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바라보면, 그래서 시큰둥하게 바라보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어떤 때는 사인을 해달라는데 저는 사인할 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항상 쓰고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합니다. 언제 생긴 버릇이냐 하면 87년 6월항쟁, 80년대부터 제가 인권변론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사회 때때로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 뒤에 가니까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 뜻을 바꿨어요.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사회. 사람노릇의 예를 들면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짐승도 잘하지요. 여러분 TV에 많이 보지요. 과학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짐승을 끄찍이 사랑하고 키워냅니다. 그런데 짐승은 부모를 모시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지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지요. 그게 사람노릇이지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것도 사람으로서 할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사람노릇하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는 사회 그러자면 모든 사람이 사람노릇을 해야 더불어 사는, 모두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사인문구를 바꾸었습니다. '희망이 밑천이다' 그렇게 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꼭하고 싶은 일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갑시다. 할 수 있다는 희망, '희망이 밑천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주저앉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바른 길로 잘 성장하는 밑천은 희망이다,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희망을 가지면 어떤 곤경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박수)